

홈런 포함 4안타 윤도현...신바람 타격 기대된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일본 오카나와=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T와 연습경기서 공·수 맹활약
KIA, 김기훈 난조로 3-4 역전패
부상 복귀 박찬호 활발한 움직임

‘기대주’ 윤도현이 홈런 포함 4안타쇼를 펼치면서 내야에 새 바람을 예고했다.

KIA가 25일 일본 오카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3-4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는 아쉬운 패배로 끝났지만 윤도현이 팬들을 웃게 했다.

지난 18일 호주 캔버라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워밍업을 했던 KIA는 이날 KT를 상대로 캠프 첫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체제로 전환했다.

황동하가 선발로 나선 KIA에서는 재활을 끝낸 박찬호가 유격수 겸 투타자로 섰고, 최원준(중견수)-윤도현(2루수)-이우성(1루수)-이장진(좌익수)-변우혁(지명타자)-정해원(3루수)-주요상(포수)-박정우(우익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쿠에바스를 선발로 내세운 KT는 배정대(중견수)-김민혁(좌익수)-로하스(우익수)-박병호(1루수)-강백호(지명타자)-황재균(3루수)-김준태(포수)-장준원(유격수)-천성호(2루수) 등 경쟁한 라인업으로 맞섰다.

1회초 황동하가 첫 타자 배정대에게 우중간 2루타를 내줬지만 김민혁의 직선타로 원아웃을 만들었다. 로하스의 타구를 잡은 유격수 박찬호가 3루에 송구했지만 세이프. 1사 1-2루에서 박병호의 타구가 2루로 향했다. 윤도현이 좋은 수비로 공을 낚아채면서 투 아웃을 재웠다. 이어 황동하가 강백호를 스탠딩 삼진으로 잡고 1회를 끝냈다.

1회초 수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윤도현이 타석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박찬호의 중견수 플라이와 최원준의 불넷으로 만들어진 1회말 1사 1루. 쿠에바스의 초구 몸쪽 높은 공을 공략한 윤도현이 중견안타를 만들었다. 후속 타자 불넷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윤도현이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타점과 득점을 동시에 올렸다.

0-0으로 맞선 3회말 2사에서 윤도현이 KT 두 번째 투수 원상현을 상대했다.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를 흘려보낸 윤도현은 2구째 낮은 직구를 지켜본 뒤 3구째 가운데 물린 128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월 솔로포를 장식했다.

KIA의 2024 스프링캠프 첫 홈런포다.

윤도현의 활약은 계속됐다. 1-0으로 앞선 5회말 1사 2루에서 전용주를 상대로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한 윤도현. 그는 1타점 좌전 적시타와 함께 3연속 안타를 장식했다.

터아웃에서 “혼자 다 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지



KIA 타이거즈의 윤도현이 25일 오카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0-0으로 맞선 3회말 2사에서 원상현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날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만 윤도현의 안타 행진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윤도현은 7회말 1사에서 김민을 공략해 3루 선상을 빠지는 2루타로 4연속 안타를 장식했다. 이어 고종욱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3-0이 됐다.

4안타로 윤도현의 연습경기 첫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8회초 김기훈의 난조를 시작으로 팀이 대거 4실점을 하면서 3-4가 됐고 KIA의 공격이 9회까지 이어졌다.

선두타자로 손동현의 초구를 공략한 윤도현. 때론 타구가 좌중간으로 향하면서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좌익수 정준영이 좋은 수비로 윤도현의 공을 낚아채 원 아웃을 만들었다.

1사에서 한준수가 우중간 2루타를 날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고종욱의 타구가 중견수를 넘지 못했고 변우혁의 강습타구는 3루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면서 경기는 KIA의 역전패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발로 나온 황동하는 3이닝 동안 49구를 던져 2피안타 1볼넷 3탈삼진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144km를 찍었다.

박찬호와 최원준은 좋은 수비로 박수를 받았다.

부상에서 회복해 두 타석을 소화한 박찬호는 중견수 플라이와 유격수 땅볼로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2회초 1사에서 김준태의 깊숙한 타구를 외야까지 달려가 낚아채며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최원준은 3회 1사 2루에서 키 넘어가는 로하스의 타구를 잡은 뒤, 1루로 송구해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습경기 첫 경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한 KIA는 26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7일 일본 야쿠르트와 캠프 두 번째 연습경기를 진행한다.

/wool@kwangju.co.kr

“시합은 자신있다...타격, 오늘만 같아라”

4안타 윤도현 “전날 ‘역대급’ 훈련서 헤맸지만 본능적으로 타격”

“아구하면서 가장 못했다”고 울상 짓던 KIA 타이거즈 윤도현의 반전이였다.

25일 일본 오카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의 경기에서 가장 눈길을 끈 선수는 바로 3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한 윤도현이었다.

김도영의 입단 동기인 3년 차 윤도현은 프로 첫 캠프에서 ‘리틀 김하성’으로 불릴 정도로 남다른 타격 실력을 발휘했다. 시범경기에서 입은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재활을 했던 윤도현은 지난해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신음했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부상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윤도현은 1회 첫 타석에서 쿠에바스의 초구를 공략해 안타를 만든 뒤 좌월솔로포 포함 4안타 행진을 했다.

입단 후 첫 해외 캠프, 첫 연습경기에서 제대로 타격 실력을 보여준 윤도현이지만 전날 그는 ‘지옥’에 다녀왔다.

엑스트라 타격 훈련이 끝난 뒤 윤도현은 “역대급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윤도현은 이날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타격 훈련을 했다.

“아구하면서 가장 배팅을 못 했다”는 윤도현. 이

범호 감독은 몇 차례 윤도현을 붙잡고 타격 조언을 해줬다.

윤도현은 “하체 이야기를 하셨다. 나갈 때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최대한 뒤에 받쳐 놓고 하라는 말씀이셨다”며 “그냥 못 했다. 그래도 라이브는 괜찮았다. 공이 잘 보였다. 라이브 때 힘을 다 쓴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윤도현은 다음 날 실전에서 언제 고민했던 것처럼 거침없는 타격을 선보였다.

연습은 연습일 뿐, 자신을 믿고 경기에 나선 게 통했다.

윤도현은 “첫 타석은 본능적으로 타격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기억도 안 난다. 쿠에바스가 선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초구에 쳐서 불이 어떤지 이런 것을 모르겠다”며 “훈련 상황에서는 초구 변화구 왔을 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궤적을 머릿속에 그려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4안타라는 좋은 결과는 냈지만 ‘감’은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윤도현은 “시합은 다른 거니까 전날 안 좋았던 연습 생각은 아예 안 했다. 오늘도 그렇고 배팅 질

때 감이 좋지 않았다. 시합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치니까 되는 것 같다. 시합은 자신 있었다. 실전이 중요하다”며 “수비는 아직 유격수가 가장 편하기는 하지만 계속하면 2루, 3루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첫 연습경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윤도현은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답답하다.

그는 “타격은 오늘만 같으면 될 것 같다. 기본은 좋은데 큰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한다. 계속 잘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잘해야 한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3루 자리에서 어릴 무대를 가진 2년 차 정해원도 “끝까지 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에이스 쿠에바스가 선발로 나온 이날 KT 타석에서도 배정대-김민혁-로하스-박병호-강백호-황재균 등 경쟁한 타자들이 나란히 자리를 했다. 타자로서는 물론 수비를 하면서도 상대 타자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됐다.

정해원은 “뽕같이 2군에서 시합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초반에는 긴장도 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더 발전해야 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보고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다. 오래 붙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동계체전 ‘금빛 질주’

전남 금18개 등 39개 ‘역대 최고’
조다운 스키 크로스컨트리 5관왕
빙상 전 종목 석권 광주 목표 달성

제110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5일 마무리 됐다. 강원도 일대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먼저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로 총 39개의 메달을 따내며 역대 최대 메달수를 기록했다. 종합점수 역시 역대 최고인 351점을 획득하며 종합 8위에 올랐다.

‘다관왕’ 도 대거 배출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기대주’ 조다운(화순제일중 2년)은 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스프린트 1.2km에서 금메달을 더하며 3년 연속 5관왕에 등극했다.

조다운은 대회 1일차 여자15세이하부 클래식 5km에서 22분17초2의 기록으로 1위, 대회 2일차 프리 7.5km와 복합 경기에서 각각 28분56초5, 51분13초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회 3일차인 지난 24일 여자15세이하부 계주15km에서도 안미랑(화순제일중 2년), 전다경(화순제일중 3년)과 함께 출전해 1시간00분43초5의 기록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다운은 “코스를 완주했던 순간순간들이 제일



내며 3관왕에 올랐다.

전남 바이애슬론에서는 티모페이 랍신이 전 종목을 석권하며 4관왕에 올랐고 예카테리나 입바쿠모바는 3관왕이 됐다.

랍신은 바이애슬론 남자일부부 집단출발15km, 혼성계주, 스프린트10km, 계주 22.5km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카테리나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부부 집단출발 12.5km에서 41분14초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혼성계주, 스프린트7.5k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선수단은 전년보다도 45.5점 높은 161.5점을 획득하며 당초 목표로 삼았던 종합 13위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서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컬링, 바이애슬론, 산악 등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가 참가한 광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광주는 특히 사전경기 기간에 열린 빙상 경기에서 전 종목 메달을 석권하는 등 활약했다.

지난 1월 11일-13일 개최된 빙상 스피드 사전경기에서 장운우(성덕초 6년)가 남자 12세이하부 1500m에서 2분13초14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매스스타트와 주종목인 2000m에서도 은메달 2개를 추가로 획득했다.

광주는 지난 3일 진행된 쇼트트랙 남·여 12세이하부 2000m릴레이에서 동반 동메달을 수상했고, 지난 20일 열린 빙상 피겨경기에서 문수현(주월초 5년)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사전경기에만 총 6개의 메달을 챙겼다.

본 대회기간에는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짝꿍 동메달 1개가 나오면서 광주는 전체 메달을 금 1·은 2·동 4개로 늘렸다.

김승안-강태관(이상 전남대 체육교육과 2년)-장기현-이희권(이상 전남대 체육교육과 3년)은 대회 3일 차인 지난 24일 열린 남자대학부 30km계주 결승에서 2시간40분42초7를 기록하며 1위 충남(1시간25분55초8)과 2위 강원(1시간26분32초9)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평창·글·사진=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류현진(왼쪽 두번째)과 한화 투수진이 25일 일본 오카나와현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2차 스프링캠프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투구 아트쇼”...한화, 개막전 선발 예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최원호 감독이 류현진의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 등판을 예고했다.

최 감독은 25일 팀 스프링캠프가 진행 중인 일본 오카나와현 아에세 킨 야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수가 없다면 류현진은 개막전에 들어간다. 날씨 때문에 원래 잡은 훈련 일정에 차질만 없다면 개막전에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화는 다음 달 23일 잠실구장에서 지난해 프

로야구 챔피언 LG 트윈스와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23일 한화 캠프에 합류 이후 불펜 투구를 한 차례 소화한 류현진은 26일 한 차례 더 불펜에서 던진 뒤 3월 1일 첫 라이브 피칭을 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23일 불펜에서 45구를 던졌고, 최 감독은 계속 감탄하며 이를 지켜봤다. 최 감독은 류현진의 첫 불펜 투구를 놓고 말 그대로 ‘아트(예술)쇼’라 표현했다. /연합뉴스